

소통으로 융합해야 한다

Homogeneous Convergence in Architect Community via Dialogue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인 지구,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빙하는 흘러내리고 검은 원유는 깊은 바다에서 60여일째 뿜어 나오고 있다. 잘 고치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갈 곳도 믿을 만한 곳도 적당치 않다. 그간 담당 의사를 두지 않고 수천만년을 지내 온 '디폴트' 옵션에 걸어 놓은 것이 잘못이었나 보다. 이 행성을 살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리기에 수십 년 전부터 지각있는 미래학자들은 우리는 하나요, 하나가 되어 대응하자고 외치지 않았는가. 기초 시장 질서를 하나로 하여 융합하기를 동구가 붕괴되어 냉전시대가 막을 내릴 때 이미 선포한 것이다. 이 위대한 선언이 서로의 체계와 경제적 이득에만 초점이 맞추다 보니 옳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통의 장벽이 생기게 된 것이다.

우리 삶의 터인 건축계의 몸 상태 역시 별로다. 여러 진단을 받아 치료책을 내놓았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절대 강자의 힘이 필요할 때인데 그만 민주주의의 논리에 잡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많은 건축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각론에서 흔들리고 있다. 발전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진실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대다수의 의견 전달을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이 진보적이라는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다. 반대논리를 개발하여 논쟁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 의식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은 정말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다.

건축계는 이제 화학적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의 공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결정에 절대적인 명분에는 반대하고 본다. 우주가 Big Bang으로 생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평범한 문제의 호불호를 각자가 선택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대부분의 선택은 자신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거나 적어도 다른 누가 선택한 것 보다는 본인의 선택이 현명하다는 가정을 한다. 이러한 선택과 가정을 우리의 건축계가 처한 현실과 미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융합 논의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시장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살아 남기 위해 제 닭을 잡아야 할 시점이다. 좁은 시장에 많은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융합하여 질서를 바로 잡고 넓은 시장으로 나가야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

이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에 우리 건축계의 사명인 것이다. 아니 우리가 깨치고 나가 우리의 후배에게 물려줄 운명적 업보인 것이다. 불리한 사실은 축소하고 알뜰한 숫자에 의해 지연적인 사실을 확대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절대적 사실은 양심의 미명 아래 배척하고 신념을 빙자해 자기 주장만 한다면 몸이 불편한 우리 건축계를 어떻게 치유하겠는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다수의 식견과 신뢰는 소통과 상생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예측가능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적간의 사실에 궤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 발전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모든 조직은 필요에 의해 분열하고, 통합하고 융합하며 진화한다. 지금은 융합해야 하는 모든 이유들이 모두 입력이 되었으니 Enter 기능 키를 눌러야 할 때다. 새로운 단계의 진화를 위해 진정한 소통을 통해 융합해야 한다. 우리는 융합으로 결말을 내고 건축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남겨진 숙제를 문을 달고 충실히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어뢰에 의해 건축함도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근창 / Yi, Kun-Chang, KIRA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제1기 건설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전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 전 아시아건축사연합회 회장
-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부회장